

기계설비협의회

2010년도 기계설비협의회 신년인사회 개최



▲ 기계설비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2010년도 기계설비협의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기계설비협의회(회장 강석대)가 지난 1월 11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2010년도 기계설비협의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강석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요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CO₂ 감축과 함께 녹색혁명이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국가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37%를 소비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강석대 회장은 또 “지난해 설비건설협회가 추진하여 국회에 상정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과 설비기술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책임 감리용역 입찰자격 및 설계용역의 공동계약 추진 등은 대외적으로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독립성을 각인시키고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석대 회장은 “지난해 기계설비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계설비의 위상강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단결했듯이 경인년에도 기계설비협의회를 중심으로



▲ 강석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인년도도 기계설비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했다.

일치단결하여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강신형 윤리위원장님이 기계설비인 윤리현장을 낭독하였고, 케익 절단식에 이어 정승일 기계설비협회 전임회장과 최상홍 기계설비협회 초대회장의 건배사가 있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2009년도 우수기계설비인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감사패를 받은 최상홍 원로회원은 기계설비협의회 창립의 주역으로서 초대와 2대 회장을 지냈으며, 평생동안 기계설비업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포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포상 내역	성명	소속
포상패	성열구	(주)대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병하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형식	경인냉열산업(주) 대표이사
감사패	최상홍	(주)한일엠이씨 회장
	박정일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서기관
	이정범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계획팀장

지난 86년 기계설비분야의 당면과제 개선과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계설비협의회는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를 비롯하여 대한설비공학회(회장 유호선) 한국냉동공조협회(회장 이완근)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이민우) 설비엔지니어링협의회(회장 이원구) 등 5개 단체와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회장 김철영), 전국대학 설비분야교수협의회(회장 김규생),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회장 나정서), 건설기술인회(회장 정학모) 등 4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 경인년도도 기계설비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단합할 것을 다짐하며 5개 단체장이 케익을 절단하고 있다(좌로부터 유호선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이완근 한국냉동공조협회 회장,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이민우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이원구 설비엔지니어링협의회 회장)

건단련

건단련, 2010년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 지난 1월 7일 롯데호텔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왼쪽 두 번째) 및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건설업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가 개최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 정부인사와 장관급, 김성곤, 김영환, 강길부, 허천, 신학용, 박상은, 신영수, 김진애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및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관련단체장 등 건설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정운찬 총리는 축사에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녹색의 기적을 이룬다면 선진국 진입의 큰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도 이제는 녹색기술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설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건설산업이 저탄소 녹색기술에 앞서간다면 해외시장을 더욱 넓히고 신성장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우리 건설인들은 지난 60여년간 국토를

새롭게 창조하고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올려놓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건설인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으로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건배제의를 했고 신년 축하 시루떡 커팅식을 가졌다. 이후 이어진 만찬에서 강석대 대한설비협회 회장은 장관급 국회의원,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정계 및 건설단체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기원했다. 